

지방정부의 해외투자유치전략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김병운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외자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군 태스크포스(TF)(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

*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bykim8@hanmail.net

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 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융합되는데 있다.

핵심주제어: 외자유치, 투자유치, 기업유치, 국제교류, 통상교류, 자유무역협정, 전략 산업, 핵심역량, 차별화

1. 서 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수출 규모와 통신 인프라 등 13개 항목을 평가한 직접투자(FDI) 유치 잠재력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잠재력은 20위지만 실적은 140개국 중 10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중국은 천문학적인 외자를 유치,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 잡아 매년 400억~600억 달러를 유치, 지난 2004년 계약 기준으로 누계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도 외자 유치에 빠지지 않는데 중국과 1·2위를 다툰 만큼 각국으로부터 돈이 몰려드는데 미국에서도 1970~80년대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산업공동화 위기가 도래하자, 주정부에서 다투어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현대 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에 11억 달러를 들여 연산 30만대 규모의 대형 공장을 차린 것도 다분히 지자체의 노력 덕분이다. 주정부가 도로 개설 등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00여명의 근로자 교육 경비를 모두 제공하였다. 영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10%대에 달하던 실업률이 외자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에 성공하였고, 실업률이 5%이하로 낮아졌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외자점유비율은 싱가포르가 137.2%로 가장 높고, 중국과 프랑스가 각각 40.4%와 40.3%, 이어서 영국이 38.6%, 호주, 캐나다, 미국, 독일은 20%대 수준. 한국이 11.7%인 반면, 일본은 극단적으로 낮은 1.2% 수준이다.

여기에서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지방정부 투자유치 노력의 명암을 먼저 짚어본 뒤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및 차별화된 전략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타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투자유치 현황과 문제점

2.1 타 지방정부 현황

2.1.1 경기도

- 경기도 민선 3기 투자유치 현황

<표 1> 민선3기 첨단기업 투자유치 현황(연도별)

구분	계	2002년 7-12	2003	2004	2005	2006
건수(건)	105	5	4	44	37	15
금액 (백만불)	13,741.1	78	10,602	1,280.1	1,379.9	401.1

자료 : 경기도 투자진흥과, 2006.4.30 현재

<표 2> 민선 3기 첨단기업 투자유치 현황(고용규모별, 직접고용)

계	50명 이하	51~100명	101~200명	201~300명	301~ 1,000명미만	1,000명 이상
105개 업체/ 29,684명	31/996	23/2,036	29/4,692	7/1,950	10/4,300	5/15,710

자료 : 경기도투자진흥과, 2006.4.30 현재

경기도는 민선 4년 동안 113개 외국기업으로부터 140억 5600만 달러를 유치, 5만 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둠. 특히 파주 LCD 첨단산업단지는 투자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기업의 CEO가 가장 먼저 찾는 장소가 되었으며 휴전선에 불과 10km 이내에 위치한 이곳에 LG 필립스를 유치하기 위해 2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지정을 6개월로 단축시켜 행정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알박그룹과 히타치금속 등 4개 업체와 총 3000만 달러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 알박그룹 2개 계열사는 파주 LCD 첨단산업단지 내에 대형 TFT-LCD

2개 공장을 추가 건립키로 했고, 히타치금속은 평택 현곡지구에 추가로 공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경기도는 이번 투자유치로 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조향장치 전문기업인 비숍(Bishop)사로부터 925만 달러(약92억원)의 투자를 유치. 비숍사는 화성정밀과 공동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평택 현곡 외국인전용단지에 1,850만 달러 투자해 올해 공장을 완공하고, 40명의 연구원과 근로자를 고용해 11월경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 비숍사는 벤츠 등 전세계 승용차의 조향장치 점유율 23.8%로 세계1위를 달리는 기업으로 향후 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부품업체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

2.1.2 충청북도

충청북도 민선 3기 때 독일의 유리전문 제조회사인 쇼트사로부터 3억 5000만 유로(미화 4억6000만 달러), 미국의 제약회사인 티슈진 4000만 달러, 일본 쇼트 구라모토 코리아 1억1500만 달러, 일본 스템코로부터 1억3500만 달러를 각각 유치하였으며 2005년 말 현재 청원군 오창산업단지 1곳에 들어온 외자만 8억 달러 이상이다.

충북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일찌감치 해외자본 유치를 외치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5대양 6대주 투자유치단 구성을 추진하였고 해외자본 유치와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제개편도 매듭지었다.

2.1.3 대구시

대구시장은 죽어가는 대구경제 회생에 외국투자 유치가 절실하다고 보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2.1.4 인천시

인천시장은 포트만 컨소시엄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에 초고층 복합단지개발을 위한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 2012년까지 110억 달러를 유치하는 성과 거두었다.

2.2 충청남도

2.2.1 지방행정 변화와 국제 교류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에 따라 국제교류는 기존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 상호 의존의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교류의 성격과 범위도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첫째, 국제교류의 주체가 과거 국가 위주의 개념에서 지방정부나 민간단체 등 개별주체로 이동하고 있으며, 둘째, 정치와 경제영역에 한정되었던 교류영역이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셋째, 국제교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사항으로 전환되고 있다.

2.2.2 지역별, 분야별로 편중된 국제 교류

2005년 현재, 충청남도는 6개 단체와 자매결연, 9개 단체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도내 11개 시·군은 6개국의 26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충남도의 6개 자매결연단체 및 9개 우호협력단체는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지만, 교류 실적은 자매결연단체의 경우 일본·중국과의 교류가 86.6%, 우호협력단체의 경우 중국과의 교류가 85.3%를 차지하는 등 편중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16개 시·군의 경우 몽골, 벨기에, 독일의 1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자매결연 자치 단체가 미국, 일본,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의 목적 중의 하나가 국제 이해라고 할 때, 보다 다양한 나라와 자매결연 활동을 통해 국제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005년까지 충청남도는 총 540회 6,568명의 교류가 있었으며, 분야별로는 주요 인사 방문 등 일반 행정 분야의 교류가 가장 많다. 따라서 교류대상의 다양화와 함께 교류분야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표 3> 충청남도의 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

(2005. 12. 31 누계)

단체별	실적		결연 년도	
	회수	인원		
총계	540	6,528		
자매·우호단체 계	418	5,025		
자매결연 단체(6)	소계	336	3,913	
	구마모토현	222	2,756	1983
	허베이성	69	710	1994
	아무르주	16	140	1995
	남호주주	18	191	1999
	미시오네스주	3	39	2001
	비엘코폴스카주	8	77	2002
우호협력 단체(9)	소계	82	1,112	
	산둥성	24	205	1995
	바이에른주	3	34	1996
	볼리바르주	4	70	1997
	캘리포니아주	1	17	1997
	레닌그라드주	4	22	2000
	연변조선족자치주	32	652	2002
	룽안성	3	30	2005
	지린성	4	40	2005
	장쑤성	7	42	2005
기타지역	122	1,543		

<표 4> 충청남도 시군의 해외 자매결연 현황

(2005. 12. 31 현재)

기관별	외국자치단체	결연일
천안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오레곤주 비버튼市 •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市 	89. 5. 1 97. 8. 26
공주시(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구마모토縣 기쿠스이町 • 일본 시가縣 모리야마市 • 일본 야마구치縣 야마구치市 • 미국 앨라배마주 켈훈郡 	79. 9. 15 91. 8. 5 93. 2. 23 92. 11. 14
보령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상하이市 칭푸區 • 일본 카나가와縣 후지사와市 • 미국 쇼어라인市 	99. 4. 26 02. 11. 15 03. 10. 15
아산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요녕성 푸란띠엔市 	97. 5. 20
서산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나라縣 텐리市 • 벨기에 후이市 • 몽골 자황도 • 독일 안스베르그市 	91. 11. 7 84. 12. 7 04. 10. 26
금산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쩌린성 안투縣 	95. 3. 28
부여군(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나라縣 아스카村 • 일본 후쿠오카縣 다자이후市 • 일본 미야자키縣 낭고村 • 일본 시가縣 가모우郡 히노町 • 일본 시가縣 가모우郡 가모우町 • 중국 낙양市 	72. 11. 28 78. 4. 21 91. 9. 2 90. 5. 15 92. 11. 2 96. 8. 13
홍성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산둥성 이수이縣 	02. 4. 24
예산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市 	03. 12. 4
태안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산둥성 타이안市 	97. 4. 23
당진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워싱턴주 스노미쉬郡 	89. 5. 10

2.2.3 미비한 국제교류 및 통상전문 인력

충청남도는 지방 차원에서의 국제통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통상 전담부서인 국제통상협력과 (국제교류계와 국제통상계)를 신설하였는데 2006년 현재 국제통상과는 국제기획 · 국제교류 · 국제진흥-투자유치 · 중국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제교류 및 통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전무하며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외국어 능력과 국제교류·통상의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 인력이 결여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국제교류 전문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뉴욕, 일본 구마모토, 중국 상해 등 3개

해외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지원하고 있다. 1999년 설립된 충청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는 충남도내의 중소기업 경영개선과 세계화를 위해서 전략적 육성 및 안정적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영전반에 걸쳐 직접지원 또는 유계지원을 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충남인터넷무역센터는 도내 기업들의 수출증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투자기업이 쉽게 진출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표 5>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조직 및 인력 현황

(2007년 3월 현재)

구분	부문	인원수	기능
국제통상과	국제기획분야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 국제화 수준향상 및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개발 •국제화 관련 민간조직 육성 및 협력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명예국제협력위원 운영 •국제 업무에 대한 관련기관 및 실과·시군과의 협조 업무
	국제교류분야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을 통한 외국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재외교민과의 협력 •도, 시·군 국제교류 추진 지원 •해외사무소 지원 및 운영
	통상진흥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통상 지원 등 통상 진흥시책을 수립·시행 •시·군의 통상업무 및 서울통상지원사무소와 해외사무소의 활동을 지원
	중국지원팀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과의 장기적 발전방안 수립 추진 및 교류증진 •중국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중국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해외사무소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산물의 수출을 지원
	소계	29명	
투자유치담당관	투자기획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기업 및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및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외자유치설명회 및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지원업무
	투자유치1	4명	
	투자유치2	3명	
	기업유치	3명	
	소계	15명	
총계	44명	-	

2.2.4 활발한 통상 및 외국인 투자유치

충청남도의 무역수지는 2000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국가의 무역·통상 부문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충남의 무역수지흑자는 2001년 24억 달러 이후 2005년에는 156억 5천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역국별로는 수출의 경우 2005년에 중국(40.6%), 일본(21.6%), 홍콩(16.9%)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미국(-15.8%), 독일(-7.3%) 등 미주 및 유럽으로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수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충남의 무역국은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향후 교역국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수출 품목의 대부분은 공산품(99.4%)으로써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1년 491백만 달러에서 2004년 1,200백만 달러로 연평균 36%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천안·아산·당진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6> 충청남도 무역수지 현황(2001~2005)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증가율
2001년	11,652,525	9,245,497	2,407,028	-
2002년	15,150,513	9,335,303	5,815,210	141.6
2003년	19,806,013	11,262,375	8,543,638	46.9
2004년	29,271,550	15,425,613	13,845,937	62.1
2005년	33,519,624	17,863,430	15,656,194	13.1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2006.

<표 7> 연도별 외국직접투자유치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구분	합계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건수	381	234	38	41	26	42
유치실적	5,013,072	2,038,649	491,062	580,990	701,646	1,200,725

자료: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2005.

III. 투자여건 변화와 전망

3.1 자유무역협정 확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배경으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FTA)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3년 2월 칠레와의 FTA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FTA 발효 13개 국가 (칠레 + 싱가포르 + ASEAN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등 7개국 + EFTA회원국 4개국), 타결 3개 (미국, 인도, ASEAN, 이 중 미국, 인도는 국내비준절차 진행 중), 협상완료 1개 (EU), 협상 진행 중인 곳이 5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GCC)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와 한국과 ASEAN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부르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 국가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 국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 6개 국가

3.2 국제교류협력의 증대

세계화에 따라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도 국제관계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의 경제·문화·체육·인적교류 및 상징사업 등 다양한 국제교류가 증대되고 있다.

IV. 투자유치 정책 방향

4.1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지방이 국제교류의 한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외교와 국제교류를 추진할 조직, 인력, 기반시설 등 기반여건을 확충한다.

4.2 생산적 국제교류 확대

4.2.1 민간주도의 교류활동 다양화

기존의 기관장이나, 직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유지 방문 중심의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자매결연 활동으로부터 주민,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는 국제교류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민간 교류단체를 발굴·지원하고, 내실화를 위해 사전 교류단계부터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4.2.2 교류대상지역의 다변화

미국, 일본, 중국 편중의 자매결연 대상지역 및 국제교류 활동지역을 외국 자치단체와의 상호보완성과 유사성에 착안하여 유럽, 동남아 등으로 확대한다.

4.2.3 통상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향후 미국, ASEAN, 일본·중국 등과의 FTA확대를 대비하여 지역기업의 국제통상 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 등 통상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시대 지역경제개발의 주요 동인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V. 투자유치 추진 전략

5.1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5.1.1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 및 육성

국제통상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각종 통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역의 수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육성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계(係)수준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순환보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전문공무원”으로 양성한다.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를 위해 국제통상 관련 위탁교육, 해외연수기회 확대, 자매지역간 국제교류 연구과정 등의 전문 과정 교육을 확대한다.

5.1.2 지역브랜드의 육성

세계시장 지명도가 떨어지는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역브랜드를 육성한다.

5.2 국제교류협력 확대

- (1) 자매 우호단체와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차원의 교류 사업을 지원한다.
- (2) 외국 지자체 공무원의 한국 이해를 증대하기 위해 K2H(Korean Heart to Heart) 사업을 추진한다.
- (3) 환황해권 시대를 대비하여 중화권 교류를 추진하며, 기타 지역 해외교포와의 유대를 증진한다.
- (4)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한다.

세계 각국의 자치단체와 국제기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주요 국제기구(World bank, CLRAE, IULA, CEMR 등) 와 적극적인 국제교류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 (5) 「한민족 정신문화 허브」 조성한다.

충남의 열과 역사문화 홍보를 목적으로 재외동포 및 해외 입양자, 한국거주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근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도내 관광자원 체험사업 전개한다.

5.3 통상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1) 해외사무소(뉴욕, 구마모토, 상해무역과)를 도내 기업 수출 지원센터로 육성한다.
- (2) 국제교류·협력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국제통상 조직, 국제통상 인력, 전문 인력 배양 등 국제통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 통상 관련 예산을 증액하며, 앞으로 일정액의 예산을 국제협력비로 책정하여 집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3)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투자환경(교통 및 통신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노동력 공급, 공업용수, 산업폐기물 처리, 직업교육훈련 등)을 조성하며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제도를 개발 확대한다.

<표 8>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추진시책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에 전담조직 구성 • 전문 과정 교육 확대
	지역브랜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소기업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도, 시·군의 브랜드를 육성
국제교류협력 확대	인적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 우호단체와의 상호 교류 확대 • 민간교류사업 지원 • K2H(Korean Heart to Heart) 사업 확대 • 지역 해외교포와의 유대 강화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민족 정신문화 허브」 조성
통상 및 외국 기업 유치 확대	통상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무소의 기업 수출지원센터 기능 확대
	외국 투자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인 경제적, 물리적 투자환경 조성 • 외국 투자확대를 위한 행정규제 정비

VI. 결 론

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07년 1004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충남도청 개청 이래 연 단위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해 외자유치와 국내기업 유치에서 2008년 국토해양부 집계결과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2009년 7월 현재 외자 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업체별로는 코스모 석유(일본 정유회사) 10억20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오만국영석유공사(OOC) 1억3500만 달러, 에드워드(영국 진공펌프 생산업체) 4500만 달러, 대만동양약품(TTY) 1500만 달러, 마그나 파워트레인(MPT) 550만 달러 순이다.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 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군 태스크포스(TF)(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시화·반월 국가공단 2690개 업체와 인천 남동공단 1000개 업체 등 총 3690여 개 업체의 이전 및 투자계획을 전수조사하고 유치관련 안내 및 협상자료로 활용했으며 수도권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38차례에 걸친 현지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공통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진미윤(2006), 『기업도시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 국무조정실(2006),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국무조정실.
- 국토연구원(2006), 『경제자유구역의 평가와 과제』, 월간국토 11월호.
- 국회예산정책처(2006),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제15호.
- 기획재정부(2004), "기업도시 바람직한 추진방안은?", 『나라경제』, 제15권, 제11호.
- 김기환(2004), "경제자유구역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KIET산업경제』, 통권69호, pp.35-4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류성원(2008),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
- 박성호(2009),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신호윤(2007), 『중국의 외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과 시사점』, 산은경제연구소
- 장운중(2008), "외환위기 10년,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의 특징과 시사점", 『산업경제정보』, 제404호.
- 정형곤·나승권(2008), 『외자유치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충청남도(2008),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 현정택(2008),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한국경제개발원.

Inviting Strategies of Foreign Capital in Regional Governments Focused on Chungnam Province

Kim, Byeong Youn*

Abstract

As of July, 2009, Chungnam Province get DI (Direct Investment) of 2,502 corporations as the amount of 31 billion US dollars only for 3 years.

Especially, Chungnam provincial governor make a excessive performance of 2.5 times comparing to the target number, 1,000 of inviting capital, that is public promise in the election.

Now, the amount of inviting foreign capital is 1.2 billion dollars, at the end of this year it might be 1.4 billion dollars just in case of making a success on going negotiations.

This outstanding performance comes from governor's leadership and aggressive strategies of well-trained subordinates. Chungnam Province has nation-wide multiple targets focused on interdisciplinary industries including strategic industries of display, auto-parts, steel, and oil-chemistry. Also, it has organic network system based on the very descriptive and accurate informations managing the task force team consisted of 35 competent members.

In conclusion, the core competence of inviting foreign capital in a regional government is governor's strong leadership, activated organization consisted of specially well trained subordinates, and predominant differentiated strategies in details.

Keywords: inviting foreign capital, inviting investments, inviting enterprises, international exchange, commercial exchange, free trade agreements, strategic industries, core competence, differentiation

* Professor of Mokwon Univ, bykim8@hanmail.net